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5 202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一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5 / 5

시절 인연	02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6	왕위를 사양하는 형제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1	희목관찰중생(喜目觀察衆生) 주아신 1
법정 스님 편지	14	출가사문은 지행이 겸비되어야 한다.
법정 스님 향기	16	법정 스님의 '잊지 못할 사람'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18	날마다 좋은 날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0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5년 5월 1일 발행 / 통권 363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조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g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전국 각 사찰에서 봉축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급속히 변해가고, 사람끼리 혹은 가족끼리 만나 오손도손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만나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보다 가상 공간에서 접촉이 아닌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종들의 현상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품위라든가 덕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또는 부부끼리의 가족적인 예절과 도리가 소멸되어 갑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반성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꿈꾸던 미래 사회이고 정보화 사회인가 여러 가지 회의가 듭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할 것입니다. 요즘 지구 곳곳에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것도 몸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닌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컴퓨터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생물을 가까이해야 하는데, 차디찬 기계 장치만을 접하고, 기계 장치에서 지시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인간이 지닌 고귀한 덕성이라든가 품위가 자꾸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10대 제자 가운데 천안제일天眼第一 아나울 존자가 있습니다. 출가해서 55년 동안 눕지 않고 곳곳이 앉은 채로만 수행을 한 사람으로, 결국은 눈을 못 보게 되지만 대신 천안통天眼通이 열립니다.

초기경전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역품力品에 보면 아나울 존자와 부처님과의 대화가 실려 있습니다. 아나울 존자가 어느 날 해진 옷을 기우려고 하는데, 육신의 눈이 멀어 바늘에 실을 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나울은 “누가 복 지을 사람이 있으면 나를 위해 실을 꿰어주면 좋겠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누군가 바늘과 실을 받아서 해진 옷을 기워주었는데, 알고 보니 바로 부처님입니다. 깜짝 놀라 아나울 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 복 지을 일이 무엇이 있기에, 저 같은 사람의 옷을 기워 주십니까?”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이 “아나울이여! 이 세상에서 복을 지으려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섯 가지 법에 있어서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섯 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보시와 가르침과 인욕과 설법과 중생제도와 바른 도를 구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나울은 다시 부처님께 묻습니다.

“여래의 몸은 진실한 법의 몸[法身]인데, 다시 무슨 법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여래께서는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너셨는데, 더 지어야 할 복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렇다. 아나울이여! 네 말과 같다.

중생들이 몸과 말과 생각의 근원[三業]을 참으로 안다면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길에 떨어진다. 나는 그들을 위해 복을 지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힘 중에서도 복의 힘이 가장 으뜸이다. 그 복의 힘으로 불도를 이룬다.”

삼업三業을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의 도리, 우주 질서입니다. 그런 인과의 도리를 안다면 결코 나쁜 짓을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막돼먹은 짓을 한다는 것은 그 인과의 도리를 모르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짓도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말과 생각, 세 가지로써 착한 업도 지을 수 있지만, 한 생각 어두워지면 나쁜 업도 짓기 마련입니다.

이런 복을 지으신 분이기에 부처님 공덕이 얼마나 큰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32상 80종호 가운데, 부처님의 눈썹 사이에 흰 터럭(길고 굵은 털)이 있는데, 백호상白毫相이라 합니다. ‘백호상 일본 공덕도 수용 불능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상스러운 몸 가운데 하나인 미간에 돌아난 터럭, 그 사소한 공덕도 중생들은 다 받아 쓸 수 없도록 공덕이 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처님이 일찍이 복을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 이름만 들먹이더라도 그 덕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상상들 해보세요.

몸과 말과 생각의 근원을 참으로 안다면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 인과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쁜 길에 떨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힘 중에서도 복의 힘이 가장 으뜸이다. 그 복의

힘으로 불도를 이룬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불자가 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오늘 부처님 앞에 등불을 밝히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이 인연으로 우리 이웃에게도 등불을 환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나 이웃 간에 그동안 어떤 갈등이 있었다면 오늘을 계기로 다 풀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화해의 등’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거들고 보살피는 일로서 ‘자비의 등’을 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등불이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밝은 날에는 필요 없습니다.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현해야 불자가 됩니다. 절에 와서 삼귀의하고 불공한다고 해서 불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자비를 이웃에 실현할 때 내가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삶의 지혜와 사랑을 만나는 이웃에게 실천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곳에 부처님은 오십니다.

작은 선행이라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만나는 대상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 하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헛되지 살지 않고 잘산 날이 됩니다. 성불하십시오.

- 이 글은 법정 스님이 200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에서 하신 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왕위를 사양하는 형제

옛날에 십사라는 왕이 네 사람의 왕비를 거느리고 살았다. 첫째 부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라마라 했는데, 라마는 뛰어난 용기를 지닌 데다 힘이 장사여서 아무도 당해 낼 이가 없었다. 둘째 부인도 아들을 두었는데, 이름을 라만이라 했다. 셋째 부인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어 이름을 바라타라 불렀고, 넷째 부인의 아들은 멸원악滅怨惡이라 했다.

왕은 네 부인 가운데 셋째 부인을 가장 사랑하고 귀여워했다. 왕은 어느 날 셋째 부인에게 속삭였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줄지라도 아깝지 않겠소. 그러니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십시오.”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다음 소원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어요.”

왕은 그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언약했다. 그 뒤 왕은 중병에 걸려 매우 위독해졌다. 그래서 첫째 부인이 낳은 태자 라마를 자기 대신 왕으로 삼고, 머리에 천관天冠을 씌워 위엄과 법도를 왕의 법과 같이 했다.

셋째 부인은 왕을 간호하다가 병이 조금 나아지는 걸 보고 자신의 지극 정성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라마 태자의 왕위 계승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 왕에게 전날의 소원을 말했다.

“이제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컨데, 라마를 폐하고 우리 아들 바라타를 왕위에 오르게 하소서.”

왕은 이 말을 듣자 마치 목구멍에 무엇이 걸려 그것을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제 와서 큰아들을 폐하자니 이미 왕으로 세운 터요, 그대로 두자니 전날의 언약을 저버려야 할 지경이었다. 십사왕은 젊었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었다. 또 왕의 법에는 두말이 있을 수 없고, 먼저 한 말을 먼저 지키는 것이 그 도리였다. 왕은 사랑하는 셋째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라마를 왕위에서 폐하고, 그 의복과 천관을 벗겼다. 그때 둘째 아들 라만은 분개해 폐위된 형에게 말했다.

“형님은 뛰어난 용기와 힘이 있으면서 왜 이런 치욕을 당하십니까?”

형은 대답했다.

“부왕의 뜻을 어기면 불효가 된다. 그리고 셋째 어머니가 우리를 낳지는 않았지만 부왕이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니 우리 어머니나 다름이 없다. 동생 바라타는 성품이 온화하고 유순해 조금도 다른 생각이 없는데, 지금 내가 폭력으로써 부모와 동생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라만은 이와 같은 형의 말을 듣고서야 잠자코 있었다.

이때 십사왕은 첫째와 둘째 왕자를 나라 밖에 있는 깊은 산속으로 보내면서 열두 해가 지난 뒤에야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한다고 일렀다. 라마 형제는 부왕의 명을 받들어 조금의 원한도 없이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바라타 왕자는 그동안 다른 나라에 가 있었는데, 곧 돌아오게 한 후 왕위에 오르도록 했다. 바라타는 예전부터 두 형들과 화목

하게 지내며 공경하던 사이였는데,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부왕이 세상을 떠나 버린 뒤였다. 그는 이런 일이 모두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모를 꾸짖었다.

“어머님은 어째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해 우리 집안을 망치려 합니까?”

그리고 큰 어머니를 그전보다 훨씬 더 공경했다. 바라타는 곧 군사를 이끌고 두 형이 머물고 있는 산속으로 달려갔다. 멀리 형들이 보이자, 군사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서 형들 앞으로 걸어갔다.

바라타가 오는 것을 보고 라만이 형에게 말했다.

“형님은 전에 항상 우리 동생 바라타는 의리가 있고 겸손하고 공손하다고 칭찬하셨는데,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을 보니 우리 형제를 죽이려는 모양입니다.”

형이 바라타에게 말했다.

“동생은 왜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가?”

그러자 바라타가 형에게 말했다.

“길에서 혹시 도적 떼를 만날까 두려워 군사를 데리고 왔을 뿐이며, 다른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형님은 어서 본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맡아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형이 대답했다.

“우리는 일찍이 부왕의 명을 받들어 이곳으로 왔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만일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자식 된 도리가 아닐뿐더러 부모님에게 불효가 될 것이다.”

바라타는 몇 번이고 간청했지만 형의 뜻은 갈수록 굳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라타는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형이 신던 가족신을 얻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새로 왕위에 오른 바라타는, 그 가족신을 왕좌에 올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드리기를 마치 형을 대하듯 했다. 그리고 자주 그 산으로 사신을 보내어 형들이 돌아오기를 간청했지만, 그때마다 형들은 부왕의 뜻을 어길 수 없다면서 그 청을 거절했다.

그 뒤에도 바라타는 한결같이 자주 사신을 보내어 형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청했다. 마침내 형은 바라타 왕이 신발 공경하기를 형 대하듯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동생의 지극한 정에 마음이 움직여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바라타 왕은 왕위를 사양해 형에게 돌렸다. 그러나 형도 사양했다.

“부왕께서 동생에게 주셨으니, 나는 받을 수 없다.”

동생도 사양했다.

“형님은 만아들입니다. 부왕의 위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바로 형님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사양하다가 할 수 없이 형이 다시 왕위를 올랐다.

그들은 형제끼리 우의가 돈독하고 화목했으므로 그 덕이 나라 안에 널리 펼쳐져, 백성들끼리도 서로 받들어 섬기면서 효도하고 화목했다. 인심이 좋고 두터우니 비바람도 순조로워 나라 안은 가는 데마다 오곡이 풍성하고 질병이 없어 태평성세를 노래했다.

〈잡보장경雜寶藏經〉 제1권

*법정 스님 강론

꿈같은 이야기다. 정치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온갖 음모와 투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오늘의 이 지구상에서 이런 이야기는 정말 동화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런 일이 결코 허무맹랑한 허구만은 아니다. 부귀영화를 마다한 소부巢父와 허유許由의 고사를 들출 것 없이 우리 왕

조사에도 드물긴 했지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오늘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칠 테지만, 정치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가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익히 알고 있다. 앞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라마’와 ‘바라타’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면 세상은 근원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의 축적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에 가장 관심을 쏟을 것이다. 그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전에 세웠던 감옥은 텅텅 비어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소득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이 제일 과제일 것이므로 온갖 범죄와 재난, 공해가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나라에서라면 군대와 경찰을 막을 것도 감시할 일도 없을 테니 낮잠 자는 일로 따분해질 것이다. 그들은 그런 권태에서 탈출해 돌아가 발목이 시도록 논밭을 가꿀 것이다. 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그들의 왕국에서 부는 꽃바람이 오늘 우리들의 땀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들의 속뜰에 머물게 하소서.



법정 스님의 소장품을 연중 기증받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품, 친필 서신, 선묵, 원고 등 스님과 인연 있는 개인 소장품을 연중 기증받습니다.

우편이나 방문이 어려우면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증받은 자료는 향후 건립될 ‘법정 스님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계획이오니, 법정 스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02)741-4696
clean94@hanmail.net
- **주 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 내
(사)맑고 향기롭게

3.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희목관찰중생 喜目觀察衆生 주야신 1

선재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실행하면서 이와 같이 생각했다.

‘선지식은 보기 어렵고 만나기 어렵다. 선지식을 보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선지식을 보면 장애의 산을 깨뜨리고, 선지식을 보면 대비大悲의 바다에 들어가 중생을 구호한다. 선지식을 보면 지혜의 빛을 얻어 법계를 널리 비추고, 선지식을 보면 온갖 지혜의 길을 다 수행하고, 선지식을 보면 시방의 부처 세계를 두루 보고, 선지식을 보면 부처님들이 법륜 굴리는 것을 보고 기억해 잊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기쁜 눈으로 중생을 보는 주야신主夜神에게 가려고 했다. 이때 그 주야신은 선재동자에게 가피加被해 선지식을 가까이하면 모든 선근善根이 자라고 성숙케 할 수 있음을 알게 했다. 즉, 선지식을 가까이하면 도를 도와주는 거리[助道具]를 닦는 것을 알게 하고, 선지식을 가까이하면 용맹심을 일으키고, 선지식을 가까이하면 깨뜨릴 수 없는 업을 쌓고, 선지식을 가까이하면 굴복할 수 없는 업을 얻고, 선지식을 가까이하면 끝없는 방소[方]에 들어가고, 선지식을 가까이하면 오래도록 수행하고, 선지식을 가까이하면 그지없는 업을 마련하고, 선지식을 가까이하면 한량없는 도를 행하게 되고, 선지식을 가까이하면 빠른 힘을 얻어 여러 세계에 이르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시방세계에 두루 이름을 알게 했다. 이때 선재동자는 또 이런 생각을 했다.

‘선지식을 가까이함으로써 온갖 지혜의 길을 용맹하게 닦고, 큰 서원을 빨리 내고, 모든 중생을 위해 미래겁이 다하도록 끝없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선지식을 가까이함으로써 크게 정진하는 갑옷을 입고, 한 티끌 속에서 법을 말해도 그 소리가 법계에 두루하고, 모든 곳에 신속하게 가고, 한 터럭만한 곳에서도 미래겁이 다하도록 보살행을 닦고, 순간마다 보살행을 행해 마침내 온갖 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 선지식을 가까이함으로써 삼세 모든 여래의 자재한 신통으로 장엄한 길에 들어가고, 모든 법계의 문에 항상 들어가고, 선지식을 가까이함으로써 항상 법계에 반연하되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시방세계에 나아가리라.’

선재동자는 이와 같이 생각하고, 기쁜 눈으로 중생을 보는 주아신에게로 갔다. 그 신은 여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서 연화장사자좌에 앉아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게 하는 깃대의 해탈에 들어갔다. 몸에 있는 터럭마다 한량없는 변화신(變化身)을 나타내어 그들에게 알맞는 미묘한 음성으로 법을 설해 모든 중생을 두루 거두어 다 환희해 이익을 얻게 했다. 한량없는 변화신을 나타내어 시방세계에 가득하게 보살들이 보시 바라밀을 행하던 일을 말해 모든 일에 미련이 없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 보시하고, 마음이 평등해 교만이 없고, 안팎의 것을 모두 주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게 했다.

중생의 수효와 같이 한량없는 변화신으로 법계에 가득하게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 청정한 계율을 지님을 말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온갖 고행을 닦아 다 구족하고, 세간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애착이 없음을 말했다. 생사의 현실에서 윤회의 오고 감을 말하고, 인간과 천상의 성쇠와 고락을 말하고, 모든

환경이 다 부정하다고 말하고, 모든 법이 다 무상하다고 말했다. 모든 행이 다 괴롭고 맛이 없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뒤바뀐 것을 버리고 부처님의 경지에 머물러 여래의 계율을 지니게 말했다. 이와 같이 여러 계행을 말해 계행(戒行)이 널리 풍겨 중생들을 성숙케 했다.

또 중생의 수효와 같은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온갖 고통을 참으라고 했다. 즉, 베고 오리고 때리고 꾸짖고 경멸하고 욕할지라도 마음이 태연해 동요하지 말며, 모든 행에 낮지도 높지도 말고 중생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내지 말며, 법의 바탕에 편안히 머물고 그대로 알며 보리심을 말해도 다함이 없음을 말했다. 마음이 다하지 않음으로 지혜도 다함이 없어 모든 중생의 번뇌를 끊으며, 중생들의 미천하고 누추하고 온전치 못한 몸을 말해 염증을 내게 하고, 여래의 청정하고 미묘하고 더없는 몸을 말해 즐거움을 내게 하니, 이런 방편으로 중생들을 성숙케 했다.

또 중생계와 같은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의 기호에 따라 용맹정진으로 모든 도를 도와주는 법을 닦으라고 말하며, 용맹정진으로 악마와 원수를 항복시키고, 용맹정진으로 보리심을 발해 흔들리거나 물러가지 말고, 용맹정진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해 생사의 바다에서 나오라고 말했다. 용맹정진으로 악도의 어려움을 없애고, 용맹정진으로 무지의 산을 무너뜨리고, 용맹정진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되 고달픈 생각을 내지 말고, 용맹정진으로 부처님의 법륜을 받아 지니라고 말했다. 용맹정진으로 온갖 장애의 산을 무너뜨리고, 용맹정진으로 중생을 가르쳐 성숙케 하고, 용맹정진으로 불국토를 정화하라고 하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생을 성숙케 했다.

* 선재동자가 희목관찰중생 주아신을 찾아 가르침을 듣는 간절한 구도 이야기는 2회로 나뉘어 계속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편지

5월 13일

덕조님께.

인편^{人便}에 보내준 사진 잘 받았네.

사진 찍느라고 애 많이 썼겠다.

기행^{紀行} 연재물은 신문사 형편에 따라 언제까지 연재될는지 알 수 없지만, 박경리^{朴景利} 씨 것이 30회로 끝나는 걸로 미루어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싶다.

연재가 끝나더라도 단행본^{單行本} 한 책분을 쓰려고 한다.

대만은 여행 순서에 따라 맨 마지막에 싣게 될 것이다.

이번에 해장사^{海藏寺} 신도들 왔을 때 마침 주지스님도 함께 자리를 같이하게 되어 송광사 체면이 섰을 것 같다.

날씨가 안 좋아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밖에 나가 남의 나라 언어^{言語}를 배우면서 공부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옛날 구법승^{求法僧}들이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정법^{正法}을 배우고 익힌 그 뜻을 거듭 되새기기 바란다.

출가사문^{出家沙門}은 지행^{知行}이 겸비되어야 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행^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덕조에게

인편^{人便}에 보내준 사진 잘 받았다.

사진 찍느라고 애 많이 썼겠다.

기행^{紀行} 연재물은 신문사 형편에 따라 언제까지 연재될는지 알 수 없지만, 박경리^{朴景利} 씨 것이 30회로 끝나는 걸로 미루어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을까 싶다.

연재가 끝나더라도 단행본^{單行本} 한 책분을 쓰려고 한다.

대만은 여행 순서에 따라 맨 마지막에 싣게 될 것이다.

이번에 해장사^{海藏寺} 신도들 왔을 때 마침 주지스님도 함께 자리를 같이하게 되어 송광사 체면이 섰을 것 같다.

날씨가 안 좋아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밖에 나가 남의 나라 언어^{言語}를 배우면서 공부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옛날 구법승^{求法僧}들이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정법^{正法}을 배우고 익힌 그 뜻을 거듭 되새기기 바란다.

출가사문^{出家沙門}은 지행^{知行}이 겸비되어야 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행^行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90년 5월 13일 덕조스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잊지 못할 사람’

스님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님의 글에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매우 까다롭고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스님을 어렵게 알았고 스님도 속마음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연한 속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겨울, 스님은 지리산 쌍계사 탑전에서 혼자 안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농가에서 닛새 탁발했습니다. 암자로 돌아오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놀라 부엌으로 갔더니 낫선 스님(수연)이 불을 때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으로 겨울을 지내러 왔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제일 바로 전날, 법정 스님이 앓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오르고 오한이 났으며 밤에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수연 스님이 물을 먹여주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 스님은 잠깐 아랫마을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해가 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정 스님은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 늦은 밤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스님이 약사발을 들고 들어와 약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울었습니다. 수연 스님은 읍까지 왕복 80리 길을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돈이 없어 탁발해 약을 지었습니다. 그러곤 밤길을 걸어 암자까지 와서 약을 달였던 것입니다. 그 후, 두 스님은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겨울 해인사에서 만났습니다. 수연 스님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스님을 진주 포교당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해 겨울 지리산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법정 스님은 눈 쌓인 소나무를 들어 올리다가 손목을 삐었습니다. 그 무렵 소포 하나를 받았습다. 그 안에는 뽕 데 바르는 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연 스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후, 수연 스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샘터〉 사원이었던 정채봉은 스님의 글을 받으려 봉은사 다래헌으로 찾아가곤 했습니다. 스님은 불일암으로 가셔도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글에서 오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원고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정채봉이 찾아왔습니다. 사과하려고 밤차를 타고 내려온 것입니다.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함께 부엌에서 아침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에 우편물이 왔습니다. 정채봉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생신을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을 애뜻하게 길러준 할머니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채봉이 첫 월급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내복을 사드릴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스님의 생신 선물을 무엇으로 살까 생각하다 내복을 샀다고 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편지를 두 번이나 읽었습니다. 정채봉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묘를 이장하고 나서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채봉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원실을 찾아가자 한쪽 팔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앙상한 모습이 떠올라 몇 차례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 백형찬 : 서울예술대학 교수 역임, 수필가, 맑고 향기롭게 회원

날마다 좋은 날

산다는 것은 비슷비슷한 되풀이만 같다. 하루 세 끼 먹는 일과 자고 일어나는 동작, 출퇴근의 규칙적인 시간 관념 속에서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온다. 때로는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면서, 또는 후회를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노상 그날이 그날 같은 타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시작도 끝도 없이 흘러간다. 이와 같은 반복만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나머지 허락받은 세월을 반납하고서라도 도중에서 뛰어내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안으로 유심히 살펴보면 결코 그날이 그날일 수 없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또한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란 다행히도 그 자리에 가만히 놓여 있는 가구가 아니며, 앉은 자리에서만 댄돌도록 만들어진 시계 바늘도 아니다. 끝없이 변화하면서 생성되는 것이 생명 현상이므로, 개인의 의지를 담은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운문(雲門) 선사가 보름날의 법회에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십오 일 이전은 그대들에게 묻지 않겠다. 십오 일 이후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 보라.”

한 번 지나가 버린 과거사는 묻지 않을 테니 그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일 것이다. 여럿의 얼굴을 쭈뼛어보았지만 하나같이 꿀먹은 벙어리였다. 이윽고 선사는 자신

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

하루하루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시들한 날이 아니라 늘 새로운 날이라는 뜻이다. 철저한 자각과 의지적인 노력으로 거듭거듭 태어나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늘 새로운 것이다. 타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하루 24시간의 부름을 당한다. 그러나 주어진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매순간 자각하는 사람은 그 24시간을 부릴 줄 안다. 한쪽은 비슬 비슬 끌려가는 삶이고, 다른 한쪽은 당당하게 자기 몫을 이끌고 가는 인생이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이 저마다 각기 다른 얼굴과 목소리를 지니고 있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여럿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특성을 펼쳐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초대받은 나그네들이다. 두 사람의 예수나 똑같은 석가모니는 필요가 없다. 개성과 기능이 각기 다른 사람끼리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저마다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다. 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하고 외곬으로만 몰고 가려는 이념이나 주의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인류사를 되돌리려는 반시대적인 역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둘레는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데 어떻게 좋은 날일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생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도전을 받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력에 의해 의미가 주어진다. 날마다 좋은 날을 맞으려면 모순과 갈등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내야 한다. 하루하루를 남의 인생처럼 아무렇게나 살아 버릴 것이 아니라, 내 몫을 새롭고 소중하게 살려야 한다. 되풀이되는 범속한 일상을 새롭게 심화시키는 데서 좋은 날은 이루어진다. 1977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 앙 모 임 (02-741-4696)

■ 오디오북 <법정 스님 108 법문> 출간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생애 마지막 법문 등 15년간 행한 주요 법문 담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법정 스님 108 법문>이 오디오북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오디오북의 명가 ㈜커뮤니케이션북스가 맑고 깨끗한 고음질로 다듬어 스님의 법문을 현장감 있게 살려냈습니다. USB형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의 음원으로도 동시에 출시돼 서점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밀리의 서재 등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 108 법문>은 '맑고 향기롭게'를 창립한 1994년 3월 26일 발족식 법문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에서 남기신 생애 마지막 법문까지 15년 동안 국내외 법회에서 행하신 말씀 108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덕조스님은 “법정 스님의 열반 15주년을 추모하는 뜻에서 그동안 아끼어 오던 법문 자료 가운데 108개를 엄선해 오디오북을 만들었다.”라면서 “은사 스님의 귀중한 법문 일체를 기왕 세상에 내놓았으니 맑고 향기로운 세상과 행복한 삶을 가꾸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출간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고이 간직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마음의 빛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스님의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법정 스님 108 법문> 오디오북

● 2025년 5월 5일 발행 ● 커뮤니케이션북스 ● 48,000원

■ 2025년 ‘맑고 향기롭게 6기 대학 장학생’ 선발 일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청정한 마음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불교 인재 25여 명을 선발하여,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진로 &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 모임의 장학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까지 약 13억 8,0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 합격자 대상 면접 심사 : 5월 10일(토)
- 장학생 최종 선정자 결과 발표 : 5월 14일(수) / 본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장학 증서 수여식 : 5월 24일(토)
- 상반기 장학금 지급일 : 5월 28일(수)
- 하반기 장학금 지급일 : 11월 11일(화)
- 문의처 : 법인 사무국 02)741-4696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 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clean94.or.kr) 참조

■ 맑고 향기롭게 숲기행 일정 안내

맑고 향기롭게 2025년 숲기행은 ‘숲길에서 만나는 명상’으로 진행됩니다.

진행일	장소	접수일
5월 24일(토)	경북 안동 화회마을 - 만송정 숲쉼 - 낙동강변길 - 병산서원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해 4월에서 5월로 변경되었습니다.)	5월 1일(목)
6월 28일(토)	강화 전등사 - 정족산성 동문 - 산성길 - 정족산성 남문(서해랑길)	6월 2일(월)
7월은 무더위로 휴회		
8월 23일(토)	강원 인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 점봉산분소 - 곰배령 (곰배령 입장이 7월 1일 사전 예약제로 인해 8월로 변동되었으며, 반드시 참석하실 분만 접수해주세요.)	6월 30일(월)
9월 27일(토)	충북 괴산 학소대 - 능운대 - 채운암 - 우암 송시열 유적	9월 1일(월)
10월 25일(토)	강원 영월 만봉사 - 싸리재 삼거리 - 납석 광업소 - 동전 연못	10월 1일(수)

- 참가비 : 6월 - 회원 45,000원, 비회원 60,000원
5월, 8월, 9월, 10월 - 회원 50,000원, 비회원 60,000원
- 후원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접수 및 자세한 설명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2일(금)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 구 모 임 (053-753-8883)

● 자원봉사자 모집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지원활동(조리, 준비, 정리 등)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4시
- 청도 운문사 정기 봉사활동 / 쌀 지원 받음 / 매월 셋째 월요일 8시 30분
출발 / 10시~14시 봉사활동 / 16시 30분 도착
- 아나바다 장터, 사무보조 등 자원봉사자 모집(하루 2~3시간 의류 정리,
서류 정리 등)

●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아나바다 장터,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5층) 상시 운영

●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무소유기행' 연2회 진행

● 어려운 이웃 반찬, 쌀, 물품 지원 사업

- 홀로어르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저소득 정신장애인, 난치병 환우
가정 지원

●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정서 지원 사업 : 경로급식 및 행복치료

● 아나바다 장터 운영 : 난치병 환우 돕기 기금 마련,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 기부받음

● 환경지킴이 활동

- 생분해 용품 사용하기, 물티슈 안쓰기, 일회용 사용 줄이기 운동 전개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 남 모 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 주 모 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천수다라니 33독송 기도

- 일시 : 5월 3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다라니 기도 봉행 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점등식을 봉행합니다.

하안거 결제, 보름기도

- 일시 : 5월 12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5월 15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5월 21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 기도

- 일시 : 5월 27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새신도 교육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장소 : 설법전
-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제외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 일 시 : 5월 5일(월) 오전 9시 50분
- 장 소 : 극락전
- ※ 관불의식은 극락전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

부처님 오신 날 제23회 길상 음악회

- 일 시 : 5월 5일(월) 오후 7시
- 장 소 : 극락전 앞마당
- 출 연 : 길상사 합창단, 장은정(현대무용), 웅산 밴드

일요법회 - 광우스님 (해인사 상임포교사)

- 일 시 : 5월 11일(일) 11시
- 장 소 : 설법전

포교스님의 명상의 기초 / 이론과 명상

- 일 시 : 5월 10일(토) 14:00~16:00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3만원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선(禪)명상

- 일 시 : 5월 24일(토) 18:30~20:30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3만원
- 접 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부처님오신날 연등공양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양을 받습니다.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02) 3672-5945

극락전(법당) 연등		지장전(법당) 연등	
대등(가족·영가등)	100만원	영가등	10만원
가족등	10만원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영가등·수기등			3만원

생전 예수제

불기 2569년 윤 6월을 맞아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유자 구해스님, 전승교육사 동희스님을 모시고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나의 삶은 나의 몫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아름다운 회향입니다.” 소중한 법석에 동참하시어, 극락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02) 3672-5945

	날짜	비고
초재	6월 14일	* 동참금 : 1인 50만원 * 장 소 : 지장전 * 49일 매일 기도 (10:50 재, 14:00 기도) * 5재 : 대령, 관옥, 함합소, 점안 (동희스님 외) * 막재 : 국가 무형유산 영산재 보유자 구해스님, 전승교육사 동희스님 모시고 봉행
2재	6월 21일	
3재	6월 28일	
4재	7월 5일	
5재	7월 12일	
6재	7월 19일	
막재	7월 26일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 정기 후원·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